

名士기권하는 인권의 책

명문가의 자식교육

박윤국 포천시장

본지는 독서를 생활습관화 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명사가 권하는 한 권의 책을 연재하기로 한다. 名士는 포천시장을 시작으로 릴레이식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소개된 책을 읽은 독자들의 독후감을 접수하여 채택된 원고는 본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이 책은 아이의 맨 처음 교사인 부모에게 드리는 고언으로서 저자가 저서에서 말했듯이 교육제1선의 전사는 부모이며, 부모가 변화하지 않고는 교육의 재기능을 회복할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더 나아가 학부모교과목, 교사도 부모교과목, 교육담당자도 부모다라는 논리로 이제 부모들이 통절히 반성하고 또 한번 회생해야 할때이며 이제

우리 자식들은 교육에 절대 필요한 최소한의 교양을 가정에서 미리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부모들의 철저한 자기개혁, 이것이야말로 모든 가정의 명문가가 거듭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며, 제4기를 맞는 지방자치체의 발전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부모론을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임 포천선관위 노승규 사무국장

“5.31지방선거 철저히 부정선거 단속”



노승규 서기관이 지난 2일 포천선관위 사무국장으로 임용됐다. 신임 노승규(사진) 포천선관위 사무국장은

경북 울주군 출생으로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8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울산광역시 울주군선거관리사무국장, 광명시선거관리사무국장, 구리시선거관리사무국장, 남양주시선거관리사무국장, 충남 홍천군선거관리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노승규 사무국장은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돈과 향을 선거가 되지 않도록 선거부정감시단을 최대한 활용해 부정 선거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향응과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 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선출방식이 정당당천 및 중선거구제가 실시되는 만큼 후보자가 난립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선거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승규 사무국장은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돈과 향을 선거가 되지 않도록 선거부정감시단을 최대한 활용해 부정 선거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향응과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 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선출방식이 정당당천 및 중선거구제가 실시되는 만큼 후보자가 난립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선거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그맨 이승환 씨, 화환대신 받은 쌀 전달

20kg 쌀 36포대 관내 복지시설에 전해

지난해 11월 결혼식 때 화환대신 받은 쌀이 주목을 받은 개그맨 이승환 씨가 포천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단체 등에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이승환 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포천시청 국제회의실에서 20kg들이 쌀 36포대를 노아의 집과 곰두리 두레마을, 가나인의 집, 사랑의 빛 선교회 등 10개 복지시설 관계자들에

게 전했다. 이 씨는 꽃도 아름답지만 보다 뜻깊은 결혼식을 위해 쌀을 받았으며 ‘화환대신 쌀로 보내주시면 좋은 일’에 쓰겠다는 절정까지 기록한 약속을 지키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이웃들과의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지난해 11월 결혼식 때 화환대신 받은 쌀이 주목을 받은 개그맨 이승환 씨가 포천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단체 등에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새인물

포천문화원 사무국장 김경민

“주민 자긍심 높이도록 하겠다”



사진을 임명했다.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오대근 사무국장의 사임으로 신임 사무국장에 김경민씨(48·

로 근무했다. 김 사무국장은 “포천문화원이 열린 문화원으로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향토사료인물 등을 발굴 계승 발전토록 하여 선진문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김 사무국장의 임기는 1월2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이는 전임 사무국장의 잔여기간이다. 김경민 기자 best114@paran.com

인정받는 청년단체로 跳躍 다짐

JCI Korea-포천, 2006년도 신년교례회



JCI Korea-포천은 지난5일 포천시청 대강당에서 2006년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짐했다.

JCI Korea-포천(회장 윤충식)은 지난5일 포천시청 대강당에서 2006년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병술년 새해를 맞아 JCI Korea-포천의 비전을 제시하고 포천시와 유관기관 단체의 신년인사와 더불어 관내 각계 인사들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짐의 장으로 마련됐다. 윤충식 JCI Korea-포천의 신년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최대중 포천시의회회장, 고조홍 포천·연천 국

회위원의 축사 및 격려사, 축하연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윤충식 회장은 “2006년에는 JCI Korea-경기 지구 회원대회를 포천에 유치해 지역 경제 발전과 시 홍보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JCI의 3대 이념인 지도역량개발, 지역사회개발, 국제우호증진을 더욱 확실히 실천하고, 재능있는 젊은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청년리더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인정받는 청년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JCI Korea-포천(포천청년회의소)은 만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표적 NGO로 외국인 근로자의 날 행사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돕기, 대만 시즈청년회의소와의 교류, 초등학교 축구대회 개최, 청년대상 시상 등, 지역사회개발과 국제 우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심터



석혜승
보문정사 주지

병술년 새해를 맞으며...

을유년이 가고 병술년 새해가 밝았다. 십이지로 병술은 개를 뜻하는데 개는 사람을 잘 따르며 먼 곳에서도 집을 찾는 영리함과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충직한 동물로 상징되어 왔다. 그래서인지 개띠 생들은 일반적으로 현신적이고 믿을 수가 있으며 강인하고 끈기가 있다고 한다.

오행상으로도 병술은 천간과 지지가 모두 양으로서 상상이 되기도 하는 해이지만, 일점 수기가 없어 편고한 특징을 갖기 때문에 병술년 개띠는 충직하고 현신적이지만 구박과 버림을 많이 받기도 한다. 충직과 현신의 대가치고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며 또한 이러한 일들이 개에게

만 국한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두에게 고된 사랑을 주지 않고 편협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가진 이들은 대부분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도 살구 중에 모양은 좋지만 실속이 없는 살구를 이러한 개의 특성에 비유해 개살구라고 하는데, 편협적인 충직과 현신은 결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모든 이에게 영안과 양분을 줄 수 없기에 과실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띠 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모든 이에게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이해와 포용이라는 덕목을 개의 충직과 강인함에 함께 접목시켜 더 알차고 보람된 병술년이 되길 기원해본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지역 농업인과 함께 나누는 희망 캠페인

육군 5군단, 우리지역 쌀사주기 운동 전개

육군 5군단은 WTO의 쌀협상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제 현실을 감안해 농업인과 고통을 분담하고 민·군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우리지역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2005년 정부의 추곡수매 제도가 폐지된 후 일부농협에서는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 지역의 쌀을 일괄 수매는 하고 있지만, 판매 지역이 대도시 지역과 이격되어 있어 판로가 제한되는 등 판매가 부진해 지난해 생산된 쌀 총 3천톤 중 지난해 12월말까지의 판매량은 약 35% 수준인 1천500여톤에 못 미쳐 나머지는 전량 2006년 재고량으로 이월된 실정이다.

특히, 일반시중가격 보다 3천원(20kg 기준) 가량 저렴한 원가 판매로 알뜰 군인가족들의 큰 호응을 예상하고 있으며, 구입 희망시에는 지역별 아파트 관리실로 주문 신청하면 종합된 물량을 일동농협에서 군 아파트 및 관사지역까지 직송할 예정이다. 이번 쌀 팔아주기 운동은 지난해 6월 30일 군단이 야전부대로는 처음으로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갈등관리위원회’를 발족시킨 이후, 매월 1회 ‘민·관·군 실무위원회’를 통해 일반 민원 사항을 조정·협의해 오고 있는 것과 연계해 실시되고 있다.

육군 5군단은 앞으로 예하 사·여단 지역에서도 지역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육군 5군단은 앞으로 예하 사·여단 지역에서도 지역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원불교는 지난 6일 전북 익산의 서정원 교도가 기탁한 성금 100만원을 이주용 군의 부모에 전달, 주용 군의 완치를 기도했다.

전북 익산에서 날아온 사랑의 손길

포천원불교, 서정원씨 성금 이주용 군에 전달

구립 30일 모 방송사에서 방영한 ‘사랑나누기 프로젝트’에 소개된 포천시 신북면 이주용(왕방초 1년) 군의 백혈병과의 한겨울 투병생활을 본 전북 익산의 서정원 씨가 포천원불교(교주 박지상)에 이 군의 치료를 위해 사용돼 달려온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서정원씨는 원불교도로서 TV에 방영된 이 군의 딱한 사정을 보고 이 군의 치료를 위해 사용돼 달려온 포천원불교에 성금을 기탁했고, 이에 따라 포천원불교는 지난 6일 오전 10시에 이 군의 부모를 초청, 성금을 전달했다.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이 군은 3년 전 발병했으며, 지난해 힘겹게 왕방초등학교에 입학해 학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일주일에

평균 1~2일 정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학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방병초기 일주일에 130만원정도 들던 수술비가 최근에 보험혜택 등으로 절감되긴 했지만, 마땅한 직업이 없는 아버지와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로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에 힘겨운 상태다. 이 군은 2~3년 정도 더 치료를 받아야 완치를 바라볼 수 있으며, 이웃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더욱 절실하다. 한편 성금을 전달한 포천원불교는 이 군 아버지의 구직활동과 이 군의 완치를 위한 기도 등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자유기고

過猶不及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야!! 울인시켰다!” 나는 너무나 즐거워 손을 높이 들고 함성을 질렀다. 쓰리 고를 넘어 포고에 파이브 고로 진행시키며 상대방에게 피박까지 씌우고 즐겨찾기 3배까지 성공하여 20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따내 상대방을 완전히 ‘울인’시킨 것이다. 내가 ‘맞고’와 인연을 맺게된 것은 한 포털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들이 이벤트게임을 잠깐 한다며 사이트에 숨겨진 파일그림들을 찾아 클릭 할 때마다 점수가 쌓이더니 이에 대한 상품으로 ‘맞고’ 게임머니 15만원을 무상으로 받으면서부터다. 당시 나는 ‘맞고’가 무엇인지 몰랐고 그냥 재미로 게임머니를 써 볼 생각이 게임사이트에 들어가 처음 게임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내가 즐거워진 ‘맞고’는 한 유명 포털사이트의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의 하나로써 게임 중 상대방을 울인 시키면 상대방의 캐리커는 연기와 함께 사라져 버린다. 또 내가 울인 당해도 다시 게임머니를 무상으로 충전하여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게임에 대한 부담이 없어 누구나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이 ‘맞고’ 게임의 인기를 위해 국내 유명 개그맨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사투리를 섞어 재미있는 멘트를 게임 때마다 내보내주며 또 다른 재미를 더 하기도 하였다. 나는 사업상 수금을 하러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는 집마다 나이는 중년이상인 사람들이 게임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그들은 모두 거

의 ‘맞고’를 치는 중이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조언도 하며 함께 ‘맞고’ 게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나도 한동안 ‘맞고’에 중독되다시피 며칠 밤을 새우며 슬데없는 시간을 낭비한 적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 또한 나의 지구력과 인내심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맞고’ 게임을 즐기지 않는다. 컴퓨터로 작업을 장시간 하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던 중 잠깐 머리를 식히기 위해 30분 정도 여차 한 번 할까, 이제는 그렇게 깊이 빠지지 않는다. 아마도 게임의 속성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넷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나, 이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이 잘만 활용하면 재미도 있고 나이트 사람들에게는 치매 예방효과도 있으며 통쾌한 쾌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효과도 있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줄 수 있어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내 할 일을 못하고 게임에만 매달려 있다든지 가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고 게임머니에 연연하여 슬데없이 흥분하고 잘못된 언행을 일삼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만 하지 않으면 말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 무엇이든 지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지 않은가.

동일교통 노사는 10일 사내 광장에서 회사측 김동은 대표이사과 노동조합 최영남 위원장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고 안전기원 및 노사한마당 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회사측에서 돼지 한마리와 다과 등이 제공되었고 조합원들은 올 한해 노사간 화합과 무사고 안전을 함께 기원했다. 최영남 위원장은 “이번 노사한마당 대회를 통해 노사간 화합과 안전을 기원하고 노사간에 상생관계가 지속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이라고 말하고 “사고없는 한해를 노사가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노사간에 갈등이 있으면 교통사고 빈도가 높다”면서 “오늘과 같이 노사가 화합하는 분위기에서는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한다”고 말했다. 하승원 기자 form66@paran.com

동일교통 노사한마당 대회 개최

노사간 화합과 무사고 안전 기원



동일교통 노사는 10일 사내 광장에서 회사측 김동은 대표이사과 노동조합 최영남 위원장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고 안전기원 및 노사한마당 대회를 개최했다.